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200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마련

- 정관 개정안 제59차 이사회에 상정키로 -



<자료사진>

예산소위원회는 1월 20일 2005년도 수지결산 및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2월 3일 개최예정인 제 59차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2006년도 사업추진 기본 방향은 송년의 밤 등 정규 사업의 내실화, 지회 예산 증액을 통한 지방 조직 활성화, 방송사료연구회(가칭) 설립 등 신규 사업 확대 등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또한 회우 1000명 시대에 걸맞게 정관을 개정,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지부·지부장은 지회·지회장으로,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으로 각각 직명을 상향 조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창립 20주년을 대비하여 '창립 기념일'을 제정하는 등 사우회의 대내외적 위상 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사우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



비주얼 아트센터(사장 서정수)는 1월 9일, 서병주 회장 등 사우회 회장단과 감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회장단은 KBS세트

제작현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비주얼 아트센터는 KBS 세트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날 간담회에는 오작표, 유동기 이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원로회우들에게 선물

- 광주지부 -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수일)는 우리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노완배, 서구호, 김정규씨 등 원로회원 다섯 분과 함평군수 이석형 회우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또 고 이창길 회원 유족에게도 추모의 정을 담은 위문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지부운영 간행물 발간

- 대구지부 -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임채기)에서는 회원을 증기에 따라 신입회원들이 모임의 뜻을 이해하고 사우회지부 컴퓨터운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30페이지 분량의 안내 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에는 운영에 관한 정관, 회무규정, 지부 자체규약 및 회원정보, 그리고 2005년도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으며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사원들을 위해 입회안내, 원서 등 필요한 서식과 경조금 청구방법 등을 수록했다. 또한 2005년도 대구총국 방문, 안동국 방문 및 지역테마여행, "길 따라 산 찾아" 문경새재 체험답사 등 활동사항을 60분용 홈비디오로 제작, 추억들을 간직하도록 회원들에게 연말 배포했다. 그리고 송년회 자리에서 75세이상된 선배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여 선배배간의 우의를 더욱 가깝도록 하였다.

2006년도 정기총회 공고

본회 정관 제 16조 2항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시 : 2006년 2월 17일(금) 낮 12시
- ▲ 장소 : KBS신관 라디오 공개홀
- ▲ 안건 : ① 2005년도 수지결산(안)
②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정관 및 회무규정 개정(안)
④ KBS사우회 창립 기념일 제정(안)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회장 서 병 주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이청수 / 122-050, 서울 은평구 갈현동 227-50 (02-357-8286, 016-244-0321) 순천향대학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02-753-6070)
- 이규형 / 540-753, 전남 순천시 덕월동 우성① 101-906 (061-741-3756)
- 김상용 / 158-819, 서울 양천구 목4동 803-33 (02-2644-3408, 011-9728-0199) 48yong@naver.com 선우홈패션 대표 (02-2655-0353)
- 홍기택 / 156-020, 서울 동작구 대방동 379-16 (02-815-1760, 011-9734-1760) kthong@kbs.co.kr
- 신영부 / 411-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655 일신건영휴먼빌④ 110-701 (031-925-4139, 011-753-4139) shinyb@kbs.co.kr

회미내신문

- ◆ 2004년 / 송영수 오재환
 - ◆ 2005년 / 강창남 배정광 박광석 송영수 이민희 오재환 정기채 정창기 한안성
 - ◆ 2006년 / 김영호 권병윤 김광수 강수식 강창남 권의철 김상용 배갑용 배정광 백승대 박광석 박규백 성동희 손춘식 신영부 엄복영 유의환 오상수 이평우 이철균 오재환 이재균 오정탁 오영관 이규형 정창록 장병양 정화용 지회하 정창기 최동호 한안성 홍준모 허만채 홍기택
 - ◆ 2007년 / 김영호 정화용
- 12월 26일 ~ 1월 25일까지 회비납부일자순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KBS88체육관 (☎ 02-2600-8808)

종 목	강습 시간	강습 일	강습료
수영	06:00 ~ 21:00	월수금/화목토	75,000원
헬스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60,000원
골프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180,000원
수영패키지 (수영+헬스)			85,000원
골프 패키지 (골프+수영+헬스)			220,000원

기타종목 : 볼링, 탁구,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스킨스쿠버, 포켓볼, 스포츠댄스, 요가

- 제천88체육관 (☎ 043-651-8855)
- 수영, 헬스, 골프, 스쿼시, 요가
- 목포88체육관 (☎ 061-284-8801)
- 수영, 헬스, 라켓볼, 에어로빅, 요가
- 빛고을88체육관 (☎ 062-956-9701)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아쿠아로빅

거듭나는 건강 지킴이
평생학습을 위한 학점은행제
내 집처럼 완벽한 KBS방송시설 관리
- KBS비즈니스가 2006년(丙戌年)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대 할인 서비스

사 원 및 퇴직사원	본 인 가 족	30% 10%
------------	---------	---------

문화산책-⑥



이인홍

일본은 지금 여계천황(女系天皇)이나 남계천황(男系天皇)이나를 두고 열전중이다.

그 발단은 소화(昭和)천황이 첩(妾)에 해당하는 후궁(後宮)을 두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해 온 이래 천황이 황후(皇后) 아닌 다른 여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 남계천황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황태자가 천황이 된 이후에는 그 직계가 단절되고 동생이 황위를 계승하게 된다.

그러나 황위 계승 순위에 들어있는 황족이 소화천황 동생집안에 3명이 있으나 황태자가 천황으로 재위하는 동안 생존여부를 짐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

다. 황족의 양자입양이 금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황실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설치된 수상의 자문회의가 작년 11월24일 「여자 포함 장자(長子) 우선」이라는 최

XX인데 Y염색체를 가진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결합하여야만 남자가 생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Y염색체는 X염색체와 유전자 교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대로 X와 Y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유전자 교류가 잘된다고 한다.

後宮없는 일본皇室 고민

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라도 장자면 천황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보고서대로 제도가 고쳐지면 지금 황태자의 딸이 여자천황(女子天皇)에 즉위하고 그가 또 아들을 낳지 못해도 장자인 딸이 황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는 여계천황(女系天皇)의 허용이 된다.

일본역사는 10대 8명의 여자천황이 있다. 그 첫 번째가 592년부터 36년간 재위했다는 수이코(推古天皇)다. 그리고 고고쿠(皇極天皇), 사이메이(齊明天皇), 지토(持統天皇), 겐메이(元明天皇)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미망인이다. 나머지는 전원 독신이다. 이 중의 2명은 두번 재위한 사람이다. 어머니로부터 황위를 이어 받은 딸은 겐쇼(元正天皇) 한 사람이다.

여계천황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여자천황이 다시 여자천황으로 계승되는 남자천황으로 계승되는 천황의 황통(皇統)이 무너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성과 유전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남자가 XY, 여자가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들에게 주로 교류되기 때문에 여자천황이 아들을 낳더라도 천황의 혈통이 퇴화되어 「만세일계」(万世一系) 황통이 단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역사는 「만세일계」 황통에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허구적인 요소가 많다. 우선 진무천황(神武天皇)이 BC 660년에 즉위했다는 것이나 125대 천황이 2700년 가까이 일본을 통치했다는 것은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천황이 융립되었던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도 깊은 골을 남기고 있는 문제다. 「내가 진짜 천황이다」라고 주장한 나고야(名古屋)의 잡화상 쿠마자와(熊澤寛道)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패전 직후 미국의 라이프 잡지 커버스토리로 보도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막부의 장군(足利尊氏)이 천황(後醍醐天皇)을 오키(隠岐)섬으로 유배시키고 새로 천황을 얹어 남북조(南北朝)로 대답하여 싸운 것이 1331년부터 60년

간 계속되었다. 결국 정통 천황을 밀어낸 북조가 황위를 계승하여 오늘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1911년 남북조를 대등하게 다룬 소학교 교과서가 발단이 되어 내각이 무너지고 북조(北朝)를 법통 천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도 「쿠마자와 천황」의 이야기가 심심찮다. 그리고 1911년에 대역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일본의 사회주의자 고토도쿠(幸徳秋水:1871~1911)가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은 남조(南朝)의 황위를 찬탈한 북조(北朝)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여파가 남아있다.

소화천황의 아버지 대정천황(大正天皇)은 생모가 후궁 아니기하라(柳原愛子)이며 할아버지 명치천황 역시 후궁 나카야마(中山慶子)의 몸에서 태어났다. 황태자로 책봉되는 단계에서 황후의 아들이 되었다. 후궁직원령(後宮職員令)은 황후 이외 「비(妃)2원인」 「부인3원」 「빈(嬪)4원」을 두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존 건서의 말대로 천황의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는 소화천황이 실현했다. 일본황실의 후궁역사를 보면 후궁 12사(司)의 여관 직제가 있었는데 총 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자식의 생산을 보아도 간무(桓武天皇)의 35명을 비롯하여 50명, 32명, 44명, 36명, 35명, 34명이 보통이며 많은 것은 181명도 있다. 이것도 일본문화의 틀림 없는 기조에 속한다.

(본회고문, KBS사장·문화공보부장관 역임)

회원여러분은 지금...

동정

- ◆ 김영용(4.19문화원장) / 지난 1월 17일 전남매일 사장으로 취임. 김사장은 광주총국 보도국 취재부장과 호남교육신문, 동서일보 발행인을 역임한 바 있다.
◆ 김은구(본회 부회장) / KBS 보도본부 출신의 동아리 모임인 'KBS 여맥회' 정기총회(1월 17일)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
◆ 마권수(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 방송위원회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위촉

- ◆ 이세진 / 원음방송 방송위원으로 위촉
◆ 전세권(동덕여대 교수) / 순수 우리 뮤지컬<천상시계> 예술 감독을 맡았다. 성군 세종과 장영실이 펼치는 대서사시로 최종원, 김신용, 나문희가 출연하고 문예진 후원, KBS가 후원한다. (1월 7일~2월 12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 최판원 / 1월 17일 바둑인터넷 '원미경 바둑@러닝원' 개설 www.tygem 바둑사이트로 들어가서 ID= '최판원'을 치면 강의실 요령이 나옴

자녀결혼

- ◆ 오인모 / 딸 (1 / 7)
◆ 김용만 / 딸 (1 / 14)
◆ 정승배 / 아들 (1 / 14)
◆ 안표순 / 차남 2월 11일 오후 1시 국제센터빌딩 (구 한일그룹빌딩) 2층

부음

- ◆ 유수호 / 모친상 (1 / 5)
◆ 안정식 / 부친상 (1 / 8)
◆ 전의섭 / 상 배 (1 / 15)
◆ 전광복 / 모친상 (1 / 18)

고희

- ◆ 김선초 / 1월 3일
◆ 민화식 / 1월 11일
◆ 정정학 / 1월 12일
◆ 나득용 / 1월 30일

편집위원 명단

김성배(위원장) 강창남
길 주 김선기 김은구 박춘병
서정원 윤기로 윤한중 이종문
정선언 한중광 이수영(부산)
도문개(대구) 김정빈(전남)
송정의(대전) 신영식(충북)
김정숙(전주) 장영수(창원)

주소변경 회원

- 김봉식 / 706-140,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27-8 (053-793-1679) 포도원농장
• 이일형 / 156-765,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주공A 2단지 201-402 (02-812-6059, 011-756-6059)
• 송영수 / 150-780,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우성A 202-203 (016-214-6168)
• 박광석 / 411-81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 1동 884(3층) (031-901-2050, 011-9019-2050) ds2mtj@kbs.co.kr (주)세하통신 이사 (02-416-3007)
• 정종진 / 121-856, 서울 마포구 신수동 453 대원칸타빌A 103-404 (02-713-3313, 011-387-3313) 한국방송개발원 (02-580-3831)
• 홍성익 / 446-939,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성원A 103-701 (031-309-0310, 010-9415-5242) hongpd@kbs.co.kr
• 우국제 / 245-130, 강원 삼척시 정상동 현진에버빌A 107-1001 (033-574-6292~3, 011-257-4502)
• 정의륜 / 210-160, 강원 강릉시 내곡동 내곡한라A 103-604 (033-643-5522, 010-6382-5511) jung1128@hanmail.net 신영공인중개사 사무소 (033-646-4644)
• 권유호 / 449-846,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 728-6 (031-263-1370, 019-328-2370)
• 이원균 / 156-839, 서울 동작구 상도 3동 335 동도빌라 가동 305호
• 심현재 / PBC 대전평화방송 편성보도국장 (042-250-3220)
• 김동희 / 019-807-5233 kdh2567@kbs.co.kr
• 박남순 / 019-9244-0549 • 김상준 / 011-9050-0085
• 김월화 / kimwoul@hanmail.net • 김현성 / 031-272-8811

[사우회 2006년도 회원수첩 내용 바로잡습니다]

- ◆ 오계환 / 서초 래미안A 109-2104
◆ 유수호의 劉는 柳입니다
◆ 유수홍의 劉는 柳입니다
◆ 유신박의 劉는 柳입니다

사우회만평



"丙戌年엔 할일도 많구나!"

좋은 전통·가치에 대한 공감 있어야



장한성 회우

나의 KBS 현직 시절, 방송언어에 대해 끊임없이 비평을 가해온 선배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그런 고언이 듣기 싫고 부담스럽기까지 했으나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 선배들의 끈질긴 노력이 우리 방송언어 순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방송 언어 못지않게 잔소리와 함께 끊임없이 고언을 해야 할 분야가 소위 콘텐츠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 문제가 아닐까 한다.

요즘 방송을 보면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지상파 방송에서조차 소위 '퓨전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다. 시청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같이 인기 연예인들을 등장시킨다. 딱딱한 설명이나 복잡한 영상보다는 연예인들의 농담과 잡담으로 정보나 화제를 전달하는 오락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교양물 같기도 한 이들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지 몰라도 한두 번 방송으로 수명을 다하는 단명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는 창구 다양화로 더욱 많은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자산적 가치가 있는 장수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으로 정통적인 수법으로 제작되는 무게 있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매주 3~4편씩 방송되던 기획 프

로그래, 다큐멘터리 시리즈, 특집드라마들도 이제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문드문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콘텐츠의 부족은 가속화될 뿐 아니라 모처럼 세계시장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열풍도 좋은 프로그램 부족으로 일찍 문을 닫을지 모를 일이다.

지난해 10월, 동경에서 「한·중·일 TV제작자 포럼」이 3박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에서 출품한 드라마 시리즈 「시어머니」의 연출자는 중국 CCTV가 「한국드라마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보라」고 하여 이 드라마를 제작했고 기대한 대로 높은 시청률을 올렸다는 것이며 일본이 출품한 드라마시리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의 연출자는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한국드라마를 많이 보고 참고를 했다고 실토하고 있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고 한국의 가족 이야기가 그들이 모방하고 참고한 주 요인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방송은 프로그램이 생명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방송 성장의 핵심이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만이 시청자와의 신뢰를 이어 갈수 있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류」도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공감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가치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공급 없이는 시청자의 신뢰와 「한류」를 지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DMB방송의 효과적 이용방법은



서정원 회우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DMB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약자로서 수신기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들고 다니면서 하나의 단말기로 방송을 시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방송과는 차별화된 미디어라 볼 수 있다.

DMB방송은 위성DMB와 지상파DMB 두 가지가 있다. 위성 DMB는 케이블 방송과 같이 유료가입자에게 서비스되고, 지상파DMB는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둘 다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하나의 수신기로 위성, 지상파 두 종류의 DMB를 볼 수는 없고, 수신자가 판단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입해야 한다.

DMB방송의 수신가능 지역은 위성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신이 가능하나 지상파의 경우는 수도권에서만 수신할 수 있다. 둘 다 지하철이나 도심지 건물내부에서 현재까지는 시청이 완벽 하지는 않지만 점차 중계시설을 확대하여 이동전화 수준의 서비스 지역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DMB는 오락위주의 전문채널이므로 장시간 자동차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무료한 시간에 이용하기 좋으나 단말기 구입 후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서비스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비와 수신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위성이나 지상파 모두 DMB방송의 또 다른 매력은 오디오 채널일 것이다. 24시간 계속되는 장르별 고품질 음악방송을 청취 할 수 있어 등산 낚시 등 야외 레저 활동에 유용하다. 또한 영업장이나 작업장의 BG(배경음악)로 활용이 가능하며 데이터 채널을 이용한 일기 교통정보도 유익한 기능의 일부이다.

퇴직 후 여가 활동이 많아진 회원들이 이용하기는 휴대용 위성 DMB 단말기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산속이나 도서 벽지 어디든 수신이 가능하고 방송채널이 많으나 수신료가 부담이 될 것이다. 대도시에서 이용하거나 수신료가 부담이 되면 지상파 DMB도 선택할 만하다.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를 하면서 작은 화면을 띄워 동시에 텔레비전을 시청 한다면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용 DMB 수신카드를 구입하여 장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홈시어터에 연결 하면 고품질의 음악 감상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언제쯤 DMB수신기를 구입할까? 하는 것은 방송권역의 확충, 프로그램의 특화 등 방송 사업자의 노력과 단말기의 성능향상과 가격인하를 위한 제조업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청자의 시청욕구 증대와 맞이될 때 보급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것이 시험될 때 가장 먼저 되지도, 지난 것에 가장 오래 남아 있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2006년 2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규방송의 전파가 발사된 기념일이면서 그 연륜도 79년의 세월을 갖게되었다. 1927년 2월 16일 JODK 경성방송국이 개국되면서 시작된 우리방송의 역사는 79년이라는 세월속에서 이제 세계속의 방송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많은 오류(잘못 기록되거나 누락 등)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방송 70년사 기록중에서 대표적인 오류사례

■ 한국방송 변천과정에서의 시대적 변화

1927년 개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79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방송은 일제식민통치하에서의 18년, 8.15해방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미군정하에서의 3년, 그리고 6.25사변에 의한 난국속에서의 수난과 극복 등 79년간의 방송 변천과정을 거쳤다. 그러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변천되는 방송의 기록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로 남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로 그 역사적 기록들에 한점의 오류없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오류로 점철된 방송변천사를 그대로 출간

8.15해방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식의 방송변천과정을 엮은 간행물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 간행물들이 엮은 방송변천기록들 중에서 많은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방송변천사에서 基幹放送正史로 출간된 한국방송 50년사와 60년사 그리고 70년사에서

몇가지만 추려보면

- ◆ JODK 2중방송 주파수 허가
▷ 70년사, 방송연표 - 모두 기록 없음
- ▼ 1933년 2월 7일자 조선총독 부관보(제1833호)에 조선총독부는 1933년 2월 7일자로 JODK 제1,2방송 주파수와 2중방송시설 허가로 명시



강완수 회우

- ◆ 언론통폐합조치 단행
▷ 70년사 PP615~620 - KBS는 1980년 12월 1일 5개민방 흡수
- ▷ 방송연표 - 1980년 11월 14일 KBS는 5개민방 흡수
- ▼ 1980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 등 각 일간지에 1980년 12월 1일 KBS에 5개민방 흡수로 보도, 위 70년사와 방송연표는 같은 간행물임에도 제각기 기록이 다름

- ◆ 방송사상 최초로 갱속 매물 광부와 대화 등 구조현장 생중계방송
▷ 70년사 및 방송연표 - 기록없음

한국방송 79년을 되돌아 보면서 - 2월16일 한국방송 기원일을 맞아 -

▼ KBS는 1967년 8월 22일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갱도봉괴로 매몰된 광부 양창선씨 구조작업현장으로 중계방송차 출동,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16일만에 구조생활) 현장 생중계방송에서 방송사상 처음으로 갱속 양창선씨와 파이프(공기 및 음식공급)를 통해 대화, 라디오전파 통해 전국에 생방송

- ◆ 1967년 8월 29일, 기자의 뉴스앵커시대 개막
▷ 70년사 및 방송연표 - 기록없음
- ▼ 위 구봉광산 갱속 매물 광부 구조현장 생중계방송과 함께 KBS는 1967년 8월 29일 생중계 시작 다음날부터의 구조현장 상황 보도에 담당기자인 김찬식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생중계 방송반과 연계하여 현장상

황을 생생하게 보도, 청취자들의 호평받아 이를 계기로 이날부터 KBS는 기자앵커시대의 막을 올리게 되었다.

한국방송 70년사와 그 부록인 방송연표에서의 많은 오류(틀리게 기재 또는 중요사료의 누락)들 중에서 지면관계로 세가지만 추려 보았다.

우선 오류발생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방송의 기원이 되는 JODK 경성방송국 설립까지의 상황과 개국에서부터 8.15해방 그리고, 6.25전쟁 종전까지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 방송변천과정의 사료들이 보존되지 않고 소실되어 극히 빈약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로인해 放送史편찬에서 원로방송인들의 회고록이나 口傳에 의한 부정확한 기록에 의존해 온 것도 들 수 있다.

특히 8.15전 JODK에 근무했던 원로들 중 일부는 사건상황 발생 년월일과 그 핵심내용이 분명치 않아 추상적인 구술등에 의한 기록도 적지 않은것으로 본다. 이같은 여건속에서 편찬되어 출간되는 放送史는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내년이면 우리방송도 인간의 산수와 같이 80년을 맞게 된다. 10년 단위로 출간되어 온 한국방송사가 80년을 계기로 또 편찬출간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회에 오류없는 우리 방송역사의 기록을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요즘 어떠세요?

金海根 회우와 茶 한잔 나누며

김해근 회우(法名:海谷)가 KBS와 연을 맺은 것은 60년 7월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3라디오 드라마 '보람이네 집' 음향효과를 맡고 있으니 그의 방송생활은 45년을 훌쩍 넘어선다.

라디오 시대에서 TV, 흑백 TV에서 컬러로, 그리고 소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숨차게 변화를 거듭했지만 라디오 드라마 음향효과 분야만은 한 우물만 파왔으니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변화가 정지된 사람'이고 '가장 오래된 유일한 사람'으로 당연히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인물'이 되었다.

"화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라디오는 소리로써 그림을 그리죠"

마침 오랜 가뭄 끝에 단비 소식이 들려온 1월12일 용인 와우정사에서 마주한 김회우의 첫 마디는 역시 라디오 방송 효과와 결부된 멘트였다. 오랜 방송 생활에서 오는 관성 탓인지 모르지만 김해근이라는 이름과 방송효과는 당연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해근 회우는 "시대에 따라 필요한 소리를 개발한 사람"이다. 때로는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빛깔을 소리로 창조했고 '삼국지'에서는 7~10만에 이르는 조조군과 3~4만의 유비,손권 연합군이 벌인 적벽대전 싸움을 현장감 넘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김해근 회우를 보면 정년 전 후가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업무가 특별히 달라지거나 변화가 없다. 음향효과라는 특수 분야라서 정년 이후 2년간의 계약 기간을 넘어 라디오 드라마 일을

소리의 창조 - 와우정사에 평생을



사진은 '와우정사의 10m 불두(佛頭) 앞에서 海谷'

소리로 연출했다. KBS에 소장된 현장음 중 많은 것들이 그의 손을 거쳐 자료화 되었다. 지금까지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소리들은 21세기 문화컨텐츠의 원천이자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35년 전 창간한 경기도 용인 소재 '와우정사(臥牛精舍)' 가람 조성은 김해근회우의 뜻이 담겨진 필생의 현장이다. 이 절을 세운 것은 물론 부처님 교리를 연구하고 호호하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를 정조가 부모를 위해 세웠고, 불국사 역시 감대성이 전·현생의 부모를 위해 세웠듯이 실향민(함경북도 나진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와우정사는 신라시대 황룡사가 당시 9개 나라 수호를 위해 9층탑을 세우고 3국통일을 위해 창건한 것처럼 남북통일 기원을 위해 장육5존불, 통일종, 통일돌탑 등을 만들었다.

김회우의 일과는 현역 못지않다. '부처님 오신 날 제정 유공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방송 개국에 앞장 선 경험을 살려 불교방송의 DMB화와 불교음악 범패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중이다.

"인연이고 업이라고 할 수 있죠" 김회우가 절을 세우게 된 이유다. 와우정사는 정초와 추석이 되면 많은 실향민들이 찾는다. 고향이 그리울 때 찾는 장소이고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의 실향민들이 통일기원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광복 20년', '아차부인 재치부인', '일제 36년사', '김삿갓 북한 방랑기' 등 김회우가 맡았던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와우정사는 어쩌면 영원한 방송인 김해근 회우의 분신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길 주 / 사진:이종문



방송비평

안 평 선 회우 (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

KBS는 2006년 방송지표를 '아시아의 창 KBS'로 정하고 8개 목표의 대기획을 발표했다. 신년초부터 '아시아의 대기획'과 '아시아최고의 제작기지 구축'의 특집프로그램들이 방송 시작되었다. 또 'KBS스페셜, 금강산'과 함께 '일요다큐산'이 정규 편성되어 산악인들의 관심을 갖게 했는데, 산악등정중에 특히 주목된 시간은 장애인들의 킬리만자로 등정과 백혈병환자들의 히말라야 등정기였다.

2006 KBS 아시아 대기획

<아시아 창문을 열다>

- 방송 : 1TV 1월1일 / PD : 허진
 - 연출 : 이은미 팀
- 쇼, 드라마의 아시아 한류열풍에 대해서 전문인들의 견해를 소개

<열린음악회-노래로 하나되는 아시아>

- 방송 : 1TV 1월1일 / 연출 : 서태룡
- 베트남, 중국가수 출연, 아시아의 중심 방송

<KBS 대토론>

- 방송 : 1TV 1월1일
 - 사회 : 임병걸(보도경제팀장)
- 새해 첫날 문을 열면서 큰 기획의 의미를 새김.

<역동의아시아 황금대륙을 가다>

- 방송 : 1TV 1월3일~8일
 - PD : 황용호, 박봉용
 - 연출 : 안성진, 홍진표, 최지원, 김현
 - 나레이터 : 송지현
- '장강의 역류 중국' '인도차이나의 별 베트남' '황금나라의 부활 캄보디아, 태국'

'동방의 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깨어나는 거인 인도1, 2'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의 교육열이 뜨거웠고, 정치지도자들이 오로지 경제발전과 국력배양에 총력을 집중하고, 젊은세대의 애국심이 넘치고, 의욕적이고 도전적인 열정이 인상적이었다. 50년

로 시작한 대하드라마는 광복을 전후한 현대사를 소재로 선택했다. 그 세월과 시대가 평탄하지 않고 파란과 격랑이 심했던 기간이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작진들이 그 시기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에 사회상의 변천과 인물들의 사고(思考)를 접근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있

2006 아시아의 창 KBS, 문을 열다

계획을 진행하며 수입의 절반이상을 자녀교육비에 투자한다는 중국은 6.25전란을 겪은 뒤에 우리나라 우골탑(牛骨塔)을 상기하며 공포감마저 들었고, 호치민의 도이머이(개혁)가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부유한자는 더 부유하게'를 주장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경제시책을 비교하게 했다. 세계 최고를 향해 스타과학자들을 불러들이는 싱가포르와 빈부의 차별이 심한 사회이면서도 60여년 축적된 민주주의의 경험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규제철폐, 개혁과 개방의 신경제정책을 펼쳐가는 11억의 거인 인도도 우리앞에 부딪친 큰 산처럼 보였다. 자극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양리포트이면서 관광적인 효과도 충분한 6부작 특집이었다. 인도는 두편으로 나누어서 여유를 주었고 인도네시아가 빠진데는 내역이 있겠지만 공금했다. 중국편에서 '산샤 댐' '충칭' '서기동수' 등, 아직은 한자 자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대하드라마 1945

- 방송 : 1TV 1월 7일(토)~22일(일) (1~6회)
 - PD : 이성주, 정영철
 - 극본 : 이한호, 정성희
 - 연출 : 윤창범, 유현기
- 지금까지 1TV 주말 대하드라마는 대체로 사극류를 편성해 왔다. 2006년 새

데, 다만 노파심(杞憂)으로 끝났으면 한다.

◆ 줄거리

1950년 초여름 38선을 넘어가는 사건으로 시작. 김삼룡, 이주하가 처형되고, 6.25전쟁이 발발하고, 시대는 과거로 거슬러 1933년, 무대는 함흥(咸興), 친일과 재벌 문정관 자작(김영철)과 토종보수재벌 이인평(최종원) 양가문의 우정과 대립. 그 주위에 예측된 민민층이 받는 핍박과 복종. 그 속에 공산주의 이념을 기초로 정의와 저항이 복합적인 혼돈을 쌓으면서 무대는 경성(京城)으로 옮기고, 7년이 지나서 1940년.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소년소녀들은 청년이 되었다. (6회까지, 7회에서 고등문관시험 합격을 예고)

◆ 의견

초반이라서인지 사건의 발생과 진행이 거칠고 경직된 편이어서 정교한 정리가 요망되었고, 친일과 자작과 그 처는 성격과 행위가 극심하게 설정되어 자괴감마저 느끼게 했고, 10대 소년들이 어련보다 영웅하게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쉽게 공감되지 않았다. 특히 윤혁군이 소녀를 바다물속에서 납치해서 섬으로 끌고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은 기특하기 보다 무서운 느낌을 주었다. 친일횡포(동

족간)가 지나치고, 빈부계층간의 차별이 극단적으로 연출되어 중압감마저 주었다. 함흥에서 평양으로 진화할 수도 있었지만, 함흥고보도 명문인데, 다니지도 못할 것이면서 평양고보로 설정한 연유는 무엇인지? 함경도 사람들의 기분도 고려했으면...

신년특집 2006 희망원정대 아! 킬리만자로

- 방송 : 1TV 1월1일
- PD연출 : 김기표 / 촬영 : 김시형
- ANN : 정용실 / 3R 팀장 : 윤문희
- PD : 조휴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2기대원들이 엄홍길대장의 인솔로 15박 16일 동안의 등정기록, 서로의 다리가 되어 멀고 긴 고동의 산길을 올라 큰 기쁨을 맞는 감격의 순간은 새해 아침에 시청자들도 함께 느끼는 감동의 장면이었다.

생로병사의 비밀

<신년기획 백혈병 환자 7인의 안나푸르나 희망 등정기>

- 방송 : 1TV 1월10일(화)
- PD연출 : 배대준

백혈병 환자 7인이 한왕용대장의 인솔로 등반도우미 최진실(텔런트)등 연예인들과 함께 4,200m 베이스캠프에 등정하는 6일동안의 기록. 신체장애와 또달리 위험도가 높은 모험이었을텐데 무난히 극복,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길을 열었다. 위성전화로 가족의 격려를 드라 마택한 연출이었고, 연예인 도우미들에게 되도록 카메라를 비추지 않아서 더욱 호감을 주었다. 매일 함양제를 복용하면서 '암세포와 싸우는 것 보다는 더 힘들었다'는 한 대원의 소감이 기쁨을 정하게 했다. 건강체도 감히 결심하기 어려운 등반인데, 오직 의지의 도전이 이루어 준 개개였다.